

어항게임

목적 :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역할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2개로 그룹을 나눈다. 한 그룹은 어항(fishbowl) 모양의 내부가 되고 다른 그룹은 바깥쪽이 된다. 내부 사람이 문제를 정한다. 왜 이 게임을 하는가에 따라 시나리오를 정한다. 예를 들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어떤 캠페인 전략을 두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의사소통의 단절을 보여주거나 등.

어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내부의 그룹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지배하려 하는 사람, 긴장하거나 수줍어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주의하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고려하라.

어항게임 전이거나 혹은 어항게임 토론의 시작부분에서 진행자는 그룹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몇몇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어야만 한다. 제안서 만들기, 정보제공하기 등 그룹이 달성해야 할 외부 활동을 준비하는 “생산자 역할”과 합의 여부를 판단한다든가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다든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필요하면 제지하는 역할 등 그룹의 기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조정자 역할”, 그리고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인적인 역할”. 예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경박하거나 과묵하게?

업그레이드 : 어항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그대로 생각을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어떤 역할은 가까운 이슈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관계있을 것이고 어떤 역할은 그룹 내에서의 행동방식과 관계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묵하거나 혼란을 일으키거나 아는 체 하거나 잘난 체 하거나 중립적 태도를 취하거나 등. 역할들을 종이에 써서 사람들에게 주되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역할을 적지는 않았는가를 확인하라. 또한 종이에 쓰인 역할들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라. 사람들이 이슈를 토론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태도가 토론하는 동안에 바뀔 수도 있다.

어항게임에서 토론하는 동안 당신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발언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록표를 만들 수도 있다. 어항게임은 보통 30분이면 충분하며 보통은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한다. 그리고 후에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 보통 모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0분쯤 토론한다.

<시나리오>

이무기없는세상 월례 운영위 회의

회의 참가자 소개

- 이무기없는세상 대표 이무기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이나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사상 올바르고 아이디어를 잘 냄. 이 사람의 한 마디면 모든 게 완전 정리됨. 한 마디로 조직의 선생님.)
- 이무기없는세상 사무처장 김철수 (근면 성실한 타입. 솔선하여 조직 내 많은 일을 수행함. 조직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이무기를 존경함.)
- 이무기없는세상 A팀 팀장 김에이 : 조직 내 중견활동가. 책임감 있으나 말이 많음. 조용한 분위기를 잘 못 참는 성격이기도 함. 좋게 말하면 양쪽을 다 공감할 줄 알고 나쁘게 말하면 분쟁에 말려들기 싫어해서 나서지 않음. 조직의 감정 노동 담당.
- 이무기없는세상 C팀 팀장 김씨 : 조직의 막내. 위계질서에 민감하나 매일 지각함. 다 맞는 말 이긴 하나 표정이나 말투가 상대방을 살짝 빈정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진행 : 사무처장 김철수

안전1 삼성사옥 앞 직접행동(인간띠잇기) → 모두가 적극적으로 골고루 발언. 신속한 의사결정도 스무스 하게. 독단적 리더십의 모습도 간혹 보일 것.

안전2 조직내규 관련 → 토론에너지가 떨어지는 모습. 말 많은 김에이가 많은 말을 하게 됨. 독점 현상. 모두의 피로가 누적됨. 조직 내 위계질서 관련한 김씨의 문제제기. 이무기 발언. 김철수 동조. 결국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논의가 끝남. (회의 진행자가 시간이 별로 없음을 독촉할 것.

관찰지점들

전제 : 이 모임은 평화운동단체 ‘이무기없는세상’의 월례운영위원회의 중 일부임. 이무기없는세상의 대표 이무기, 사무처장 김철수, A팀 팀장 김에이, C팀 팀장 김씨 이렇게 4명이 참석.

주의 : 중간에 질문을 하거나 웃거나 하는 것 금물. 절대 ‘물고기’들을 방해하지 말 것.

1. 발언은 골루고 하고(주어지고) 있는가?
2. 긍정적인(부정적인) 행동이나 발언은 누가 얼마나 자주?
3. 주로 누구를 보면서 발언을 하는가?
4. 누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합의에 도달하였나?
5. 조금 더 다르게 발언 혹은 행동했다라면 좋았을 것 같은 발언은? 행동은?
6. 이외 관찰하면서 느낀 점?